

Elaine Phillips 박사, 성서 연구 입문,

세션 9, 갈릴리 지역 연구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저는 성경 연구 입문 강의를 하고 있는 Dr. Elaine Phillips입니다. 9번째 세션, 갈릴리 지역 연구입니다.

우리는 다음 지역 연구로 이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사역을 많이 하신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 이 나라에서는 그것을 갈릴리로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로는 갈릴리, 갈릴리이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그 지역을 갈릴리라고 부르는 방식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약성경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면 갈릴리에서 쓰지 마십시오. 아마도 수정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역 연구 지도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지도 번호 5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의 북부 지역에 중점을 둡니다. 그럼, 우선 약간의 검토를 하고 지역 연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노력의 포괄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지도이며, 그 맥락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대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이 작은 땅 조각으로, 중간에 있는 땅이라는 측면에서 온갖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땅과 관련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고, 초점은 여기 아래에 있으며, 아주 작은 지리적 영역 내에서 주요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산간 지방을 보았고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의 산간 지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한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룰 때 그것을 찾아야 한다면 그곳은 다른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해 북쪽 끝 서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12 마일 정도 가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산간 지방의 동쪽에 있을 비 그림자 지역인 광야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난 몇 번의 강의에서는 외국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장소를 탐험했습니다. 서쪽과 동쪽 사이에 있는 이 지역에 있던 서양인들을 기억하시나요? 글썄, 우리는 해안 평야로 들어오는 외국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페니키아인, 두로, 시돈인과 바알 숭배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에 관해 로마와 그리스-로마 문화가 가져온 영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도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따라서 갈릴리의 시작점인 자료를 진행하면서 이야기해야 할 몇 가지 소개 문제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구약성서나 구약성서에서는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 이름을 언급하는 주요 구절 중 하나이자 몇 안되는 구절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가기만 하지 말고 조금 후에 이사야 9장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도록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우울함과 어두움에 관해 매우 무거운 용어로 말하는 8장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스위치만 있으면 더 이상 우울함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갈릴리 지역에 개척된 두 지파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낫추셨으나, 장래에는 요단강 바다를 통하여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쳤도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땅에서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의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구약이나 구약의 몇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복음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지리로 이동하기 전에 약간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첫 번째 또는 구약의 끝 부분과 우리의 복음서 이야기 사이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간략한 요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조사한 바와 같이,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추방되었습니다. 남왕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를 흩어지게 만든 다른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 중 특히 아모스가 언급한 노예 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북부 왕국과 관련하여 북부 왕국과 남부 왕국의 망명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읽을 수 있듯이 앗수르인들은 인구 재확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한 곳에서 추방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나 사람들의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722년 북왕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종류의 추가 민족이 들어와서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북쪽에 있는 곳은 이사야가 앞서 말했듯이 이방인의 갈릴리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물론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와 유대를 재건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년대의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후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리스 문화와 지역 문화의 접점인 헬레니즘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이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 사이의 땅을 상기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 셀레우코스(Seleucus)는 북쪽과 동쪽, 즉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존재하는 지속적인 통치자 세트와 함께 시리아 헬레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점령했고, 그래서 우리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들어오기 전 수 세기 동안, 특히 기원전 3세기, 2세기, 1세기 동안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땅의 지배권을 놓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다 마카베오, 그의 아버지 마타티아스, 그리고 형제들이 모두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기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약 100년 동안 준독립적인 유대 국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2세기 중반부터 기원전 1세기 중반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여기서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드리겠지만, 우리는 아리스토틀레스라는 사람의 규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 작지만 한동안 활기가 넘치는 유대 국가에서 그들은 확장될 것입니다. 그들은 소규모 유대에서 통제권을 확장하고 남쪽으로 통제권을 확장하고 북쪽으로 통제권을 확장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북부 확장은 우리가 갈릴리라고 부르는 지역을 유대인의 통제 하에, 하스모니안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강제로, 강제로 그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것은 그 다음 세대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종교적, 사회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그 기준을 고수하세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암시했듯이, 특히 예루살렘 연구와 관련하여 로마가 등장할 때 기원전 63년의 장군 폼페이우스는 기본적으로 하스몬 왕조 후반부의 내부 갈등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일단 로마의

존재가 거기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에도 있을 것이지만 갈릴리 지역에도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 종교적 소속, 로마 통제 및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붙잡아 두십시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의 주요 초점은 갈릴리의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특별한 사진을 이미 보았고 그 당시 여기에 곡물 밭이 있다는 사실과 그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땅의 소산물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 두 가지, 곡식과 기름이 우리가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 사진과 관련하여 여기서 두 가지 추가 사항을 확인하세요. 분명히 여기는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모퉁이인데, 나는 여러분이 이 절벽을 보길 원합니다. 바로 여기 아르벨 절벽(Arbel Cliffs)이라고 불리며 저기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V를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이 매우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리적 구조, 지형 구조를 Horns of Hattin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도로 표지판을 갖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녹색 도로 표지판이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의 북쪽에서 누군가가 건너온다면 그들은 이 평원을 가로질러 아주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네사렛 평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거 알아요? 그들은 해수면보다 낮은 갈릴리 바다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과 그 너머의 지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그 지점은 해수면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글썄, 이건 합격이군요. 그곳은 Arbel Pass이고,

그곳을 지나갈 때 여기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 다볼산도 보이고, 이스라엘 계곡 등도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제 그 아벨 고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방향으로 향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오실 때,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실 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실 때 걸으셨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 길은 그분이 택하셨을 길일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하틴의 뿔(Horns of Hattin)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후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1187년 십자군 시대에 매우 끔찍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실제로는 십자군에서 거의 패배했습니다. . 그 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이것은 끔찍한 전투였습니다. 살라딘은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매우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Horns of Hattin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예수와 1세기이므로 먼저 지질학적 지형 측면에서 작업한 다음 역사와 일부 고고학을 그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탐구한 지질학적 기초에 관해 우리에게 친숙한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 지역, 즉 산간지대의 윗부분을 보았고, 갈멜 산도 보았고, 이스라엘 계곡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부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인위적인 삼각형입니다. 하부 갈릴리라고 말한다면 상부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음, 상부 갈릴리는 여기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고도면에서 더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험난해서 실제로 구약이나 신약의 역사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상부 갈릴리라는 지리적인

지역이 있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부 갈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지리학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경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이고 명백한 지형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쪽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계곡입니다.

이제 나는 내 삼각형이 그것을 가로지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경계는 바로 이쯤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높은 언덕이 있고 계곡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부 갈릴리에는 서부 하부 갈릴리로 알려진 이것뿐만 아니라 동부 하부 갈릴리로 알려진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무암과 다양한 석회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초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경계면에서 흰색 선은 이곳이 하로드 계곡이라는 사실을 그다지 전략적으로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쪽 경계입니다. 물론 동쪽에는 요르단 계곡 자체, 어퍼 요르단 계곡 및 바다를 모두 포함하는 리프트 벨리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돌아갈 것입니다. 북쪽에는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없지만 Beit HaKarem Valley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갈릴리가 쓰여진 곳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남쪽은 하부 갈릴리가 정말 낮기 때문에 경계입니다.

고도로 볼 때 이 지역은 더 낮습니다. 바로 여기 베이트 하카렘 계곡을 지나서 이상부 갈릴리로 들어가면 앞서 말했듯이 그곳은 고도가 훨씬 높고 훨씬 더 고립되어 있으며 훨씬 더 험준하고 북쪽에 있는 우리의 경계는 베이트가 될 것입니다. 하카렘 벨리. 서쪽에는 갈멜 산 북쪽의 해안 평야가 이어지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Akko 평야이고 그 다음은 물론 지중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지도에서는 다소

다르고 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회암과 현무암은 모두 좋은 토양을 만들어 주므로 이를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암석이 침식되면 이곳은 꽤 비옥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종류의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우리 서클에서 하부 갈릴리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아래 지역은 하부 갈릴리의 동쪽 부분인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형을 바탕으로 한 지형도입니다. 더 남쪽의 산간 지방에서 본 것과는 달리, 주요 능선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카르멜 산의 주요 등뼈가 있는 카르멜 산과는 다릅니다. 북서-남동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부 갈릴리에서 기본적으로 동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있습니다. 능선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사이에 계곡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위 글머리 기호에서 말했듯이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우선 계곡이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세펠라에서 보았습니다. 세펠라에 있는 동서쪽 계곡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과할 수 있고 외국의 영향이 그곳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로마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그 외국의 영향을 추가할 것입니다.

세포리스 라는 곳에서 로마의 면전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 그러나 이는 서구의 영향이 들어오면서 로마도 그 횡포를 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우리는 곧 갈릴리에 있는 로마의 수도인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세포리스 라는 곳은 그 영향력의 축수를 더 동쪽으로 퍼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슬라이드의 날씨 패턴이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문에서 이야기한 기상 관련 내용을 아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이유입니다. 그 압도적인 바람을 기억하시나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우세한

바람은 습기와 구름, 습기를 잔뜩 머금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일 불어오는 대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더 남쪽으로 가면 능선에 부딪힐 때 서쪽에 비가 내립니다.

여기, 동서로 이어지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이 실제로 하는 일은 습기를 머금은 구름과 날씨를 갈릴리 바다까지 퍼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들은 깔때기 역할을 하며 기본적으로 수분이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서풍이 그들을 여기로 밀어넣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갈릴리 바다 너머로 대기가 더 밀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600피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곳의 공기가 더 무겁고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원하고 습한 공기가 이곳으로 들어오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말과 여러분은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여러 번 발생했고 밤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의 지형이 전체 그림의 일부인 날씨 패턴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롭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하부 갈릴리에 관해 우리에게 중요할 몇 가지 다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강의에서, 특히 이스라엘 골짜기 구간에서 우리는 나사렛 능선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능선은 물론 우리 경계의 일부, 북쪽 경계인 이스라엘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능선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거의 예수님의 뒷마당입니다.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나사렛 능선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사렛에서 자랐을 때, 그의 첫 번째 성경의 역사를 알면서 자랐을 때, 그는 그의 앞, 이스라엘 계곡의 평탄한 지역 전체에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단계. 그의 뒷마당은 구약 역사의 많은 부분인 구약의 무대입니다.

지도에는 나사렛 능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볼 산과 모레 산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구약 역사의 구조의 일부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계곡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지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면서,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이든 배경에 관해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여행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하자마자 보여드린 사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곳이 아르벨 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5분 전에 암시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남쪽에서 와서 갈멜산을 통과하여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장벽은 here를 가로질러 와서 아마도 다볼산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길도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이 방향을 따라 가기 시작하면 Horns of Hattin의 이정표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열린 길임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계속됩니다. 북쪽으로 여행하기 위해.

우리는 이 강의에서 조금 나중에 북쪽으로 여행할 것입니다. 글썄요, 그것은 지형적인 측면에서 하부 갈릴리에 대한 약간의 설명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몇 개의 도시를 세워 봅시다.

복음서 초반부를 읽으면서, 그분이 나사렛 지역에서 이주하실 것이라는 것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작전 기지를 바로 이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나 호수 주변의 모든 도시를 이야기할 때 가버나움을 다루겠지만, 방금 그의 복음 사역의 첫 번째 부분이 이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심. 나는 그것을 읽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이 그 이야기를 읽는 동안 정말 흥미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외국인들을 섬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 시점에서 청중을 약간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 이야기가 끝날 때 그들은 나사렛 마을 근처의 절벽이나 절벽에서 그분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왜냐하면 그분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아마도 다소 자기 중심적이었을 그들의 민족주의에 도전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으로 참으로 그들을 괴롭히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또 다른 점은 여기에 일종의 하위 글머리 기호로 표시한 것인데 Gath-hepher 또는 Gathepher 라는 이름이 있고 지도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쯤인데, 조금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도전을 받으셨기 때문에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글썄요, 그의 반대자들은 그것에 대해 약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구절, 마태복음 12장과 평행 구절에서 요나의 표징을 언급할 때 그는 지역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언급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알고 있듯이 요나는 14절 25절에 가드 헤벨 출신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연결도 만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현재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역하시는 것 외에도 주변에 있는 지역의 놀라운 성경적 전통을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엘리사가 죽은 청년을 살리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수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난번에 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7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나인과 수넴이 바로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리아 산은 서로서로 떨어져 있으며 지리적 맥락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나사렛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가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지도에 보이시죠.

나사렛에서 가나로 가는 화살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이곳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곳을 알게 됩니다. 계속 바로 건너편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잠시 후에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나라고 생각하는 유적지의 유적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Cana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와 관련된 또 다른 기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관리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셔서 사자를 예수님께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청년이 낫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건 그렇고,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인들이 그 땅을 순례하는 동안 가나를 다른 장소에 두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근처에 있는 가스 하이퍼(Gath Heifer)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가나를 찾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Kfar Kana는 Kana 마을의 이름이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리학자들이 말합니다. 특히 19세기에 이곳은 접근하기가 훨씬 더 편리했기 때문에 일종의 확립된 장소였습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을 위해 이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크파르 카나에는 와인과 물을 거래하는 흥미로운 사업체, 소규모 사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더 나은 사이트는 실제로 여러분이 이미 보고 있는 저 위 지도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세포리스입니다. Richard Beatty라는 사람이 쓴 The Forgotten City라는 제목의 매우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서에서 읽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세포리스에 대해 읽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약 3~4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며 아마도 나사렛에서 4마일 정도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장하실 당시 세포리스는 갈릴리의 로마 수도였습니다.

아무도 세포리스 발굴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1970년대에 우리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우리는 세포리스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언덕 위에는 십자군 요새가 있었지만, 요세푸스나, 사실 랍비 자료에는 세포리스에 관해 할 말이 많다. 그것은 불에 탔습니다.

황제가 그것을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는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재건축 과정이 건축자로 봉사하면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요셉의 과정과 연대순으로 꽤 잘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그 제안은, 그리고 이것은 단지 제안일 뿐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문자적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그의 아버지 요셉을 도우실 때 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 도보로 세포리스 까지 통근 하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아마도 석공으로 일하면서 이 세포리스 도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나무를 톱질하지 않고 돌을 쪼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갈릴리의 로마 수도, 이제 앞서 말한 내용으로 돌아가십시오. 바로 여기에 로마의 매우 강력한 존재가 있고 동쪽으로 향하는 계곡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 방향으로 힘을 이동시키는 쉬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로마 도시에는 항상 극장이 있었습니다.

극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극장의 유적을 볼 것입니다. 아마도 1세기보다 늦은 세기의 작품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포리스 에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시며 상당한 시간을 보내셨다면, 위선자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실 때, 여기서 우리의 훌륭한 예는 마태복음 23장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표적이었는데, 자꾸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글썄, 그 용어는 배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배우를 의미하므로 완벽한 문화적 배경이 될 것입니다.

배우에 관해 말하면 그의 청중은 그것을 꽤 잘 알고있을 것입니다. 글썄, 그것에 관해 할 말이 더 많이 있지만, 평소와 같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포리스 에서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것은 가치 있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시 동안 사진을 몇 장 찍고 이러한 이야기와 제가 말한 내용을 시각적인 맥락에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계곡의 과수원에 있습니다. 여기서 올려다보면 꽤 의미있는 능선이 보입니다.

이 경사면을 내려가면 내 녹색 포인터가 있는 곳 뒤에는 나사렛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대도시입니다. 거기 큰 교회가 있어요.

수태고지 교회. 이곳은 주변에서 가장 큰 교구 교회지만 그 당시에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이 산등성이나 벼랑으로 끌고 가서 추정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가 그들을 지나서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작전 기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스라엘의 여행사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므로 이곳은 이제 Mount Precipice로 표시됩니다. 1970년대 처음 그곳에 왔을 때는 뒷길을 찾아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거기 서서 그 비탈을 내려다보고 이스르엘 계곡의 북동쪽 가장자리를 가로질러 다볼 산을 바라보면 우리는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시각을 원한다면 여기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도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다소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나인과 수넴을 맥락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같은 위치에 서 있고 지금은 모레 산입니다. 여기에 구약의 두 번째 왕의 예지력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청년을 고치고, 나인, 누가복음 7장, 예수가 고치지 않음, 두 경우 모두 죽음에서 부활했으며 물론 우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포리스 극장의 간단한 사진입니다. 그것은 기반암을 깎아 만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일부 재건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포리스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매력적인 곳이네요. 서기 70년 로마인들이 두 번째 성전을 파괴한 후,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곳은 옮겨졌고 그들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서쪽의 야브네(Yavne) 또는 잠니아(Jamnia)라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 갈릴리로 이동하고 다음 세기에는 세포리스(Sephoris)로 활동을 옮길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곳은 갈릴리 지역의 로마 수도였습니다. 이제 한동안 이곳은 갈릴리의 랍비 수도가 되었습니다. 랍비들은 유대교의 운동, 유대교의 전체 전통, 구전 토라, 발전, 그 모든 종류의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랍비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쉬나, 유대인의 법적, 할라치적 내용을 편집한 탈무드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랍비들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세포리스 에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세요. 이 사람은 랍비들입니다. 이들은 토라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랍비들인데, 여기에 얼굴의 표현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그것은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모자이크 바닥의 한 패널입니다. 모자이크 타일은 매우 정교한 건물에서 매우 우아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포리스 는 현재 모자이크 수도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로마 수도가 있고 이 모자이크와 다른 많은 모자이크가 철거된 랍비 시대가 있습니다.

세포리스 에도 정말 놀라운 회당 바닥의 모자이크가 있지만 우리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세포리스 에 숙박할 수 없습니다 . 계속 진행해야 하므로 세포리스 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 그런데 카나가 보이는 계곡 중 하나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에 대한 가장 좋은 후보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계곡 건너편, 바로 이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곳에서 몇 가지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초기에 사람들이 이곳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5, 6세기에 걸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동굴이 있어 그들이 순례자라는 증거를 남겼고, 특히 가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 오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서부 갈릴리, 서부 하부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바다 자체를 둘러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조금만 풀어보겠습니다 .

우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 말장난이군요. 이곳은 작기 때문에 바다가 아닙니다. 길이는 약 13마일이고 가장 넓은 곳의 너비는 아마도 7.5마일, 8마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수이고,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서쪽에 티베리아스라고 불리는 주요 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아스를 기리기 위해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갈릴리,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스, 티베리아스 호수라고 불리는 것 외에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은 그것을 긴네렛 바다, 긴네렛 바다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도 그 용어가 있습니다. 갈릴리, 디베랴, 디베랴 호수, 긴네렛입니다.

왜 Kinneret이라고 불리는가? 음, 히브리어 키노르 (kinor) 는 하프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보면 하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쪽은 넓다가 물론 좁아지므로 Kinneret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 위쪽에도 그렇게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수역과 관련된 일부 데이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 다음 주변의 주요 도시를 찾아보고 여기 여러 위치에서 예수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곧 가져올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이 명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것은 단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넓은 문화적 문제입니다.

큰 수역은 무서웠습니다. 이것은 특히 바다와 바다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지중해가 큰 수역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큰 수역은 깊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내부나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마음 속에 혼돈과 심연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에게 던졌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이 바다에 들어가듯 심연으로 갔으니 두려울 것이니라. 그들은 실제로 물과 우리가 지금 수상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과 그분이 실제로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통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경우 중 하나는, 우리가 말했듯이 서쪽에서 폭풍이 닥쳤을 때, 그 바람이 계곡을 통과하여 소용돌이치고 갈릴리 바다의 물을 차오르게 한 경우 중 하나는, 저는 그것이 요한복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매튜, 하지만 돌아가서 이것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폭풍이 닥쳤다고 하는데 그 단어는 우리가 seismos, seismic을 얻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구약의 여러 암시, 특히 시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바다와 물을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배에 탄 사람들의 눈에 보이셨는지에 대한 또 다른 표시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 지도의 평원 지역, 호수의 일부, 게네사렛 평원에 G가 표시됩니다. 그 이름은 게네사렛이라는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따온 것이므로 게네사렛 평야입니다. 우리는 또한 벳새다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B는 이를 나타냅니다. 농업적으로 매우 풍부한 두 지역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원칙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석회암 지역이 있고 여기에는 현무암이 있고 두 날씨 모두 매우 좋은 토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비가 오면 그 물질이 여기로 흘러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농업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아주 풍부한 지역이죠. 요세푸스는 이 두 가지가 농업 생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몇 개의 도시를 더 살펴보고 예수께서 그들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을 적어 봅시다. 여기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게네사렛 평야와 벳새다 평야의 중간쯤, 아마도 그 중간보다 조금 더 작은 곳일 것입니다. 지도에서 그 위치에 대해 알아보세요.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와 함께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하부 갈릴리, 요단 계곡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헤롯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이곳을 다스렸습니다. 여기 이 지역 건너편에는 그들을 혼합된 민족이라기보다는 민족적 독립체라고 부르겠습니다. 트라코니티스(Trachonitis), 이테리아(Iteria), 골라니티스(Golanitis) 등이 지명, 아니 지역 이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지역에는 유대인 주민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다. 거기에는 분봉왕 빌립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우리는 예수로서 잠시 후에 그 두 가지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예수께서 작전 기지를 로마가 통치하던 세포리스 지역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음을 볼 것입니다. , 그것은 정말 국경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와 분봉왕 빌립의 영토 사이의 지정학적 경계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세금 징수원을 갖고 싶어할 만한 지역에 정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요 경로도요. 우리는 벨 패스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의 경로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버나움도 그런 곳에 있을 것입니다.

세포리스의 통제권과 나사렛의 작은 마을을 떠나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흥미진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다. Chorazin과 Bethsaida, 이 세 사람은 Chorazin이 빨간색 영역보다 약간 위쪽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거기에 있는 현무암 암상입니다. Bethsaida 옆에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정확히 어디, 어떤 사이트가 Bethsaida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중 어느 하나에 무게를 두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 도시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코라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제로 도시의 믿을 수 없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활동 기지를 옮기셨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 근처, 그 근처 전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주위에 모인 무리들로부터 계속해서 보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 계속 읽어보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쉬우리라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 들리겠느냐 아니, 당신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는 바다와 관련된 깊은 사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뭔가를 추가할 것입니다.

너에게 행한 기적들이 소돔에서도 행해졌다면. 아시다시피, 구약성서 전체에 걸쳐 창세기 19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에스겔서에서도 이 내용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돔은 모든 영역에서 악을 특징짓거나 전형화하는 곳이지만 만약 소돔에서 행해졌다면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 감춰진 의미를 종합하여 이 문맥에 가져오면 이 책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으며, 특히 '아니오'라는 문맥에서 당신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나 긴네렛 호수나 디베랴 호수에 관한 자료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미 말한 것들 중 일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해수면 아래 약 700피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수역의 표면에 대해 가뭄에 빠졌는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릅니다. 가뭄이 계속해서 있었고 특히 지난 15년 또는 20년 동안 상태가 나빴습니다. . 사실, 올해이고 2020년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마침내 Kinneret의 수준이 실제로 있어야 할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해발 약 700피트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기본적으로 담수이다.

그것은 요르단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요르단 강의 근원이 되는 샘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북서쪽 모퉁이에 아마도

가버나움 근처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고 그 모퉁이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남동쪽 해안뿐만 아니라 염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천이 솟아오르면 독성이 있는 소금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은 물고기 떼에 영양을 공급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역, 예를 들어 가버나움을 훨씬 지나서 게네사렛 평야에서 낚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낚시가 많이 되네요. 글썄요, 제가 조금 전에 갈릴리 바다의 낮은 수위를 언급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말했듯이 지난 15~20년 동안 바다의 수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1980년대에는 급격히 하락했는데, 그래서 아주 아주 흥미로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그를 만날 기회와 특권을 누렸다. 그의 이름은 Mendel Noon이었고 그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갈릴리 바다 동쪽 해안에 위치한 게브(Geb)의 키부츠에서 자랐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이 사람은 키부츠니크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키부츠에서 일했지만 여가 시간에는 갈릴리 바다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작은 1세기 항구를 추적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것들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정 프리젠테이션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해안에서 약 15, 20피트 정도 나가서 약간의 고리를 만드는 적어도 30개의 작은 현무암 항구를 도표화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갈릴리 바다의 북쪽 해안을 따라 걸으면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수위가 높아져서 거의 볼 수 없지만 그 중 일부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러나 당신은 그런 것들을 따라 걷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들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그물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게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구멍이 뚫린 작은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북서쪽 모퉁이에서 어업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합니다. 거기에는 소금 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1세기 항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두 평원은 농업적으로 생산적이었고 올리브 오일 생산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 영토의 경계이며, 이는 모두 종합해 보면 농업적으로 생산적이기 때문에 많은 상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여행, 국제 고속도로의 경로는 거기에 꽤 가깝고 국경 근처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말한 것과 연관시켜 보면,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4장의 대실패 이후에 활동 기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요한복음 2장의 처음 11절에서 그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가나를 완전히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John 4는 자신이 그곳에 다시 있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 좀 더 해보자. 나는 성경의 몇 구절을 인용한 다음 이 북서쪽 모퉁이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몇 가지 것들을 더 함께 끌어내겠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삽화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몇 가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했듯이, 예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고, 그 후 마태가 구약에서 하던 것처럼 마태도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납달리 땅. 아, 글쎄요, 그 지파들의 상속 재산이 상속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계곡 북쪽에 있는 네 지파에는 납달리가 포함되었으며, 더 구체적으로 납달리는 갈릴리 바다 북서쪽 모퉁이에 접해 있는 곳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납달리 지파의 기업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한 아르벨 절벽이 그 부족의 유산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곳은

훨씬 북쪽에 있는 하술이라고 불리며, 모두 구약의 납달리 지파의 상속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말할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세푸스에게서 알고 있는 내용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약간의 역사를 끌어오고 약 3분 동안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헤롯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헤롯이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두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아버지는 Antipater였습니다.

안티파트로스는 로마인들과 정말 잘 지냈지만, 아시다시피 이두메인들은 그다지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갈릴리 총독이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도망친다.

그는 꽤 오랫동안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그는 상당한 양의 그리스-로마 문화를 흡수하고 그것에 거의 영향을 받지만 로마 원로원은 그를 왕으로 임명합니다. 날짜는 기원전 40년이다.

그가 그의 왕국을 획득하는 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은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3년이었습니다.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요세푸스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모두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은 꼭 읽어야 할 책이지만, 요세푸스는 자신의 왕국을 쟁취하려는 헤롯의 시도의 일환으로 우선 세포리스를 공격할 것이며 눈보라를 뚫고 그곳으로 진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하지만 그는 북쪽의 이 지역, 특히 갈릴리를 차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아르벨에서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방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험난한 전투였다고 말합니다. 아르벨이라는 곳이 그런 지역에 있는데 저 절벽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잠시

후에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석회암이라 석회암에는 동굴이 많아요. 절벽면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들을 볼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 방어자들은 헤롯의 군대에 의해 압도당했기 때문에 동굴에 숨었고, 요세푸스는 그들이 숨어 있을 때 헤롯이 그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하고 마침내 그의 병사들을 동굴로 내려보냈는지 알려줍니다. 크고 큰 나무 플랫폼 우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동굴 밖으로 끌어내서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도 베스파시아누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같은 종류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들도 같은 일을 했고, 요세푸스는 아르벨과 갈릴리 바다 근처의 전투에서 바다의 피가 붉게 흘렀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닷물이 피로 붉게 변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예수님이 현장에 도착하시기 불과 한 세대 전에 폭력이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Arbel과 함께 있습니다. 그 절벽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쪽이 있습니다. 그곳이 북쪽입니다. 조금 있으면 남쪽도 보이겠지만, 이 절벽 전체가 그 동굴로 가득 차 있고, 이 표면에서 보면 사람들을 학살하던 로마 군인들로 가득 찬 우리를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것을 언급하면서 그는 어둠 속에 살면서 큰 빛을 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구절을 아는 모든 사람을 인용한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는 약간의 해석학적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증거 문자를 보냈다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대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마태 시대에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청중이 문맥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체 문맥을 배울 수는 없지만 이사야의 이 부분에 대한 마태의 인용의

전체 문맥은 끝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이사야 7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작동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 모든 내용을 읽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사야서 9장에 도달할 때쯤에는 8장의 놀라운 장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반복해서 후렴하고, 9장, 특히 6절에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칭호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러한 전쟁터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쟁터가 될 이 지역, 즉 납달리 땅에 그것이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예수의 그곳에서의 사역과 마태의 언급에 대한 즉각적인 배경으로, 미래에는 베스파시아누스가 올 것이고 먼 미래에는 십자군이 같은 지역을 위해 싸우다가 살라프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헤로디아의 배경이 있습니다. 광고-딘.

음, 그것은 하나의 비네트입니다. 어업에 대해 언급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밤에 낚시를 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 주요 요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당신의 때가 오면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피터에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서 그들이 어디에서 낚시를 했는지, 그들이 성공했는지 등등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의 관습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낚시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들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맥락에서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에게서 떠나라.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까. 그는 예수께서 말하자면 바다를 보시고 그물을 던질 곳을 아시면 그의 마음도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들의 모임으로 이끄시며 베드로는 참으로 그를 따를 것이며 예수께서는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낚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고고학자로서 우리는 막달라(Magdala)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그곳을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흥미로운 작업이 있었고 1세기 회당에서 발견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트의 모습을 묘사한 멋진 작은 모자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예, 모자이크로 되어 있어서 약간 조잡하지만 여기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약간의 모델을 만든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두 개의 묘사입니다. 하나는 2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3차원입니다. 그러나 1986년에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낮은 수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 Mendel Nun은 그물 무게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1세기 항구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세트가 있었습니다. Mendel Nun이 살았던 바다 건너편의 Nof 라는 곳의 키부츠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동전을 찾으러 나섰던 기노사르. 물이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진흙 속에서 흥미롭고 귀중한 동전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찾았나요? 글썄요, 그들은 1986년에 발견된 길이 10미터의 1세기 배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진흙에서 배를 꺼내는 과정은 당연히 땅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져왔습니다. 공기가 없었다면 즉시 분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흙을 파는 동안 물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이동을 위해 폴리우레탄으로 감쌌습니다. 그들은 화학 물질이 와서 실제 목재 자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화학 세척에 넣었습니다. 이제 석화된 물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호의 배입니다.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1세기의 배였습니다. 또, 진흙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고, 꺼내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별로 정교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 물론 이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던 배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타고 있었을 배는 바로 그런 배였습니다.

최근에 그곳에 갔을 때 유발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 중 한 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라졌지만, 그 엄청난 발견의 일부였으며 아직도 살아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유발은 좀 재미있습니다.

음, 계속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어업이고 그것에 관한 약간의 것입니다. 또한 요세푸스가 묘사한 것처럼 바다의 북서쪽 마지막 작은 가장자리인 바로 여기에 게네사렛 평야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자연적 특성과 아름다움은 놀랍습니다.

비옥한 토양이 생산을 거부하는 식물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재배자들은 모든 종을 재배하며 이것이 전부이지만, 물론 그 중에는 올리브와 포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1세기입니다.

그날은 요세푸스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버나움과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올리브 프레스가 보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올리브 매쉬를 여기에 넣고 올리브는 저 구멍에 넣을 것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맷돌이라고 불리는 돌이 보입니다. 그 구멍을 통해 긴 막대가 나오고 동물이나 사람이 밀어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재료를 모두 으깨면 삼베 봉지에 넣고 여기에 올려 놓고 무게를 쟀 다음 올리브 오일 추출물을 얻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비교적 작은 가버나움의 매우 작은 유적지에서 프란체스코회가 발굴했지만 매우 많은 수의 이러한 인쇄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스스로 올리브 짜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맥락에서 약간의 산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멈춰보자.

가버나움에는 국경에 가까운 곳이 있고 앞서 언급한 모든 이유로 어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으며 지금은 아마도 석유 압착 산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놀라운 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의 매우 설득력 있는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바다가 심연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변에 있는 가르치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서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고 확실한 죽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아이를 죄짓게 하는 자는 차라리 나으니라 자, 가버나움에 관해 우리가 할 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천 명을 먹이신 후, 그들이 바다를 건너 그들을 맞으러 나가시다가 게 네살 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버나움으로 걸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들이하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는 매우 설득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놀라운 설교입니다. 본문에는 그가 가버나움 회당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전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회당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후기 건물이지만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건물의 기초에는 현무암의 검은 돌로 된 회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석회암입니다. 흰색입니다. 눈에 띄고 특정 회당의 모습으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1세기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1세기 회당의 기초인 현무암, 검은 돌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코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중에 회당이 세워진 발자국이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그 얘기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당 건너편의 일부 구조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주거지의 발자국. 그리고 한두 구절의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주거지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인슐라 하우스(insula housing)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살고 대가족을 위해 거주할 장소입니다. 서로 연결된 유닛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가족, 즉 장남이 결혼하여 신부를 집에 데려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용어를 잡아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것이다.

신부를 집에 데려오면 여기에 추가하면 됩니다. 그것은 모두 일종의 안뜰 주위에 있을 것이지만, 그냥 추가할 수도 있고, 이 절연 주택에 계속 추가하면 최대 15개의 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가버나움에만 있는 걸까요? 아니요, 당시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 마을을 대표하는 이 모든 마을에서 볼 수 있습니다.

Katsrin 이라는 곳에서 볼 수 있고, Korazin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Insula 주택은 당시 주택의 일종의 템플릿이었습니다. 뜰도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모습, 군중이 모이는 모습, 뜰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를 내려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대가족과 신부를 데려옴으로써 성장하는 가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있는 곳에 당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신학적 진리를 말씀하신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고고학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가족에 추가한다는 전체 아이디어는 알려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신부가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한다는 전체 아이디어는 여기의 구조적 구성 요소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통해 매우 잘 설명됩니다. 자, 가버나움에서는 또 다른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정말 끔찍하지만 오래되었고 우리가 찍은 사진이기도 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남겨두겠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에 촬영된 주택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이군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어난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방금 보고 있던 인술라 주택이 있고, 여기 이 위치 위에 세워진 예배당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 위에 세워졌나요? 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1세기부터 우리는 그곳에 순례자들이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그들은 낙서를 남깁니다. 4세기에는 가정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5, 6세기에는 8면의 기념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머리를 누셨던 곳이며 그곳은 분명히 순례지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가정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회당에 관해 약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세워졌을 때 4세기로 연대를 정할 수 있는 온갖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회당 구조는 훨씬 덜 화려했습니다. 밖의. 그들은 우리가 본 예 중 하나인 모자이크 바닥과 같이 아름다움과 장식을 내부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얼굴에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때쯤에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중요한 장소인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에 중요한 기독교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게리아였는데, 그는 4세기에 이 지역 전체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장소의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이 순례지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회당으로 돌아가서 가능한 제안을 던지는 사람은 나 뿐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곳 기본 기독교 공동체의 사람들은 순례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신 예수님이 설교하신 회당을 방문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아마도 순례 노력의 일부로 그것을 세웠을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이 일을 어느 시점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 왔던 갈릴리 사역과 이 지역에 있을 갈릴리 바다 주변 도시들, 흔히 은퇴 사역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연대순으로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발을 딛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기본적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여우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는 실제로 두로 와 시돈으로 가서 거기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 그는 이 지역에 올 것입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데가볼리라는 용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10개의 도시, 대체로 지구대 동쪽에 있던 그리스-로마 도시였던 10개의 도시와 그 중 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잠시 동안은 바로 거기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모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다음 번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싶은 곳입니다. 가는 길에 우리는 구약성서로 돌아가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가는 길에 우리는 여기에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야 하는데, 가는 길에 우리가 말하고 봐야 할 몇 가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아마도 헤르몬산에서 고백 후에 변형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성서에 대해 약간의 회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과 갈릴리이기 때문에 아주 빨리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솔이라는 곳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나는 태만할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 북쪽에서 적이기 때문에 하솔 왕 야빈은 왕조의 이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드보라와 함께한 사사시대, 사사기 4장과 5장에서는 야빈이 북쪽에 있는 상대입니다.

그러므로 하솔은 엄청나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것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바로 위에 Hazor가 있습니다.

Hazor를 지나갈 때 우리는 꽤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홀라 계곡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헤르몬 산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슬라이드가 두 개밖에 없지만 메모만 하고 싶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하솔에서 발굴을 시작했을 때, 그것도 아주 길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유적은 이스라엘 시대의 이스라엘 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외의 본문이 하솔에 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서 외의 문헌에서는 하솔이 후기 청동기 가나안 시대의 주요 유적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이스라엘 유물 발굴을 마치고 그것이 솔로몬 시대의 유물인지 그 이후의 유물인지 논의한 다음 모든 돌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람세스의 신전을 옮기거나 이집트의 람세스에 대한 기억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돌을 옮기고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후기와 중기 청동기 시대를 파헤치고 있었는데, 여기 하솔에서 놀라운 신전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현무암은 우리 지역의 건축용 돌이므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모두 봅니다.

그 위에 뭔가가 보입니다. 진흙 벽돌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해라는 것입니다.

그 사원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문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발굴하면서 파괴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격변적인 파괴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곳은 불에 탔는데 너무 심하게 타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현무암석이 사실은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현무암 돌은 그런데 화산 물질입니다. 그냥 부서진 것이 아니라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부서졌습니다. 현무암은 매우 심각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 3피트 두께의 화산재 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물질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고 이 화재 당시 화재의 온도는 화씨 2300도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화상이었습니다. 물론 질문은 누가 그랬습니까?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에게는 조금 먼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에 탄 정도 등과 함께 확실히 신이나 여신상으로 봉사하고 있던 수많은 형상의 파괴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나안인들은 그런 종류의 것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려고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요. 날짜가 잘 맞지 않는데, 반면에 고고학과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가끔 물음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Hazor가 실제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대화재가 일어난 후, 청동기 시대 정착지 전체가 불탔고, 참고로 청동기 시대 하조르의 면적은 210에이커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시나요? 고작 11에이커? 그리고 여기 Hazor는 청동기 시대에 210에이커에 달합니다.

분명히 그 후에는 재정착될 것이지만 그 시점부터 인구 규모는 훨씬 작아질 것입니다. 글썄요, 고고학자들이 Hazor에서 계속해서 찾고 있던 것 중 하나는 기록 보관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몇몇 서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최대 11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카이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퀘스트입니다. 여기에서는 홀라 계곡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해 중 일부를 재배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위에서 눈 덮인 헤르몬 산을 보고 있고, 그곳이 우리가 다음에 가고 싶은 곳입니다.

같은 사진이 있어요. 여기에 원류가 솟아오르는 지역 중 하나인 원류의 사진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으로 돌아가겠지만, 데이터를 좀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고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은 아, 강수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년 중 대부분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단단한 석회암 기초가 있고 바닥에 샘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수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물이 결국 합쳐져서 요르단 강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두 곳은 Dan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이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요 초점이 되는 가이사라는 비유대인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Dan 근처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카르스트 샘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시점에서 땅에서 거품이 솟아오르는 초당 약 5,000갤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정말 놀랍습니다. Dan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중간에 청동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스글론에 그러한 것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어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러 올라갔을 때 이 문은 아마도 그 시점이나 거의 그 무렵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성문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발자국입니다. 이것은 왕이나 통치자나 재판관 같은 사람이 문으로 들어올 때 그 위에 서는 연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신약성서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지파, 또는 적어도 단 지파의 일부가 자기 지파의 땅인 세펠라 지역에서 이주하여 이곳으로 올라와서 예배의 장소를 건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18장 끝에서 그들이 어떤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바로 압니다. 그들은 옛날에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는 사람의 소유였으며, 그들이 예배할 곳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행할 일에 대한 일종의 기초, 즉 비유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Dan에, 하나는 Bethel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계속해서 예배의 장소, 즉 거짓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예배 장소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만든 사람들은 실제로 뿔이 달린 제단의 크기를 나타내는 금속 틀을 세워놓았으니, 그 모양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단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정말 가깝기 때문입니다.

둘 다 헤르몬 산 기슭에 있습니다. 특히 이교 상황에서는 물과 수원이 있는 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은 이미 수세기 동안 유대인의 예배 장소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헬레니즘화된 지역이 되면, 우리는 예배 장소 측면에서 경쟁적인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의 칭호는 가이사랴 빌립보이며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세기, 기원전 2세기, 1세기 이전에 이곳에는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과 마찬가지로 샘이 있었고, 2000년 전에는 이 거대한 동굴에서 물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Pan의 동굴이라고 불립니다. 철자를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하고 싶다면 PAN으로 발음하세요. 판은 신이었다.

헬레나이저(Hellenizers)가 그리스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판의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기에 몇 가지 추가 틈새가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플랫폼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더 멀리 가면 바위 표면에 추가적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내, 당신은 그것들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은 이 전체 공간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기서는 판(Pan)이 숭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우스(Zeus)도 숭배되었고, 네메시스(Nemesis)도 숭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위쪽에 있는 거대한 절벽 아래에 사원 단지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분명히 지진 변화로 인해 물이 더 이상 그 동굴에서 분출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이동과 단층 측면에서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신에 대한 숭배, 최소한 판(Pan), 제우스(Zeus)와 네메시스(Nemesis), 아마도 다른 것들에 대한 숭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세푸스를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 근처 어딘가에 다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근처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근처에 다른 사원과 사원 단지가 있습니다.

결국 그곳은 물의 영역이다. 헤롯과 다른 이교 숭배자들은 물로 끌려갔습니다. 헤롯 빌립, 분봉왕 빌립은 정말로 그곳에서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도시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확대했습니다. 물론 그는 아우구스투스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덧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롯 빌립보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 오실 무렵에는 이미 온갖 종류의 이교도 숭배가 급증하는 곳이었습니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고, 가끔 그 주변에 관광객 무리가 있지만, 상상력을 발휘하여 숭배자들의 무리가 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전이든 판(Pan)의 거대한 동굴 앞에 있는 다른 신전이든 이것이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문이 새겨진 온갖 종류의 동전 등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원 단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몇 가지 물건이 있고 헤르몬 산 기슭의 거대한 절벽면을 예술가가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더 올라가면 헤르몬산이 될 것입니다. 글쎄, 이것은 예수님이 은퇴 사역의 마지막 부분으로 제자들을 데려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기록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 저것, 다른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멋진 교환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그 전에 1996년에 이렇게 말한 데이비드 패드필드(David Padfield)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복음,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의 대답을 문맥과 함께 종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시리아 신들의 신전이 즐비한 지역, 카이사르 숭배의 집의 흰 대리석의 화려함이 풍경을 지배하는 곳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곳에서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계 종교의 모든 화려함과 영광을 배경으로 자신을 설정하시고 그들과 비교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베드로의 선언으로 돌로 죽은 신들에게 도전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보다 앞서 진행되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아, 선지자 중의 하나인 모세, 엘리야, 예수께서도 그들을 믿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지 시리아의 로마 신들에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들 자신의 이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선지자 같은 것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할 때, 그는 분명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조차도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예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맥락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죽은 신들을 대표하는 벽감으로 가득 찬 돌 얼굴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페트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페트라는 피터 바위(Peter rock)라고 부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는 다른 종류의 바위입니다. 은유법이야. 그러한 허세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가능성을 던져 보겠습니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고 확인해 봅시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리스 학자 여러분은 전치사가 약간 유연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이 말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에피가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예요. 그것은 베드로나 베드로의 고백을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교회에 관한 거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전치사를 반대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교회에 관해 강력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방어에 나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반석과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이교 거짓 예배의 모든 사례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움직일 것이며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것도 던집니다. 랍비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혹적인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가이사랴에 있는 하데스의 문이 무너질 것이라는 참고 자료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글썬요, 그거 좀 재미있네요. 이제 나는 그것이 수세기 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일련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인격을 이교 신들과 대조시키라고 강요하십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는 고통에 대해 가르치게 될 것이지만,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편으로는 베드로야, 네가 무엇을 하는지 너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반면에, 피터, 당신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변형에 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우리가 방금 묵상해 본 구절을 직접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다볼 산이 흔히 변형의 산으로 여겨지지만 헤르몬 산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세와 엘리야의 경우, 인간 육체의 휘장이 기본적으로 찢어져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연대기를 종합한다면 이것은 실제로 초막절의 시기인 가을에 일어날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늘 활기차게 “모든 사람을 위해 초막을 짓자”라고 말한 것이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그 기간이 거의 적절하게 진행된다면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중심 장식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특히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서, 누가는 이 변형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심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글썄, 그것은 갈릴리 소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멈춰야 하고 다음 강의에서 Transjordan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연구 입문 강의를 하고 있는 Dr. Elaine Phillips입니다. 9번째 세션, 갈릴리 지역 연구입니다.